

보도	2026.6.29.(월) 14:00	배포	2026.6.29.(월)		
담당부서	은행검사1국	책임자	국 장	김남태	(02-3145-7050)
	상시감시팀	담당자	부국장	임연하	(02-3145-7060)
	은행검사2국	책임자	국 장	이지원	(02-3145-7200)
	상시감시팀	담당자	팀 장	김혜선	(02-3145-7210)

금감원,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

I.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'26.6.29일(월) 14시, 본원 2층 대강당에서 「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」을 개최하였음
 - 동 워크숍은 은행권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, 금번에는 은행지주(8개사) 및 은행(20개사)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70여명이 참석하였음
- 이번 워크숍은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공유와 함께, AI 시대의 내부통제를 테마로 외부전문가 특강 및 은행 사례발표를 진행하였음

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프로그램

시간	발표 주제	발표자
14:00~14:05	[개회 및 모두발언]	금감원 부원장보
14:05~14:35	① 전문가 특강 - AI 도입과 내부통제 패러다임 전환	안진회계법인
	② 은행 사례발표 - AI 기술을 활용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고도화 사례 -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운영 사례	신한은행 카카오뱅크
15:05~15:45	③ 최근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- 금융회사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	금감원 은행검사1국
	- 용도외 유용 사업자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	금감원 은행검사2국
	-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	
15:45~16:00	④ 질의응답	

II. 주요 논의내용

1 부원장보 모두발언 요지

- 금융감독원 광범준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다음 3가지 사항을 당부
 - ① **(안전한 AI 도입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)**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AI 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
 - ② **(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강화)** 실질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금융사고 예방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
 - ③ **(취약계층 보호체계 강화)**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, 소비자 권리 행사, 연체채권 관리 등의 영역에서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을 당부하였음

2 AI 도입과 내부통제 패러다임 전환

- 안진희계법인 김선호 파트너는 AI 도입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,
 - 이와 관련하여 거버넌스, 데이터 모델 관리, 설명가능성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 'AI 내부통제 프레임워크'를 제시하였음

- **(거버넌스)** AI 활용에 대한 최종 책임 구조 설계
- **(업무 리스크 연계)** 기존 내부통제 체계에 AI로 인한 리스크 연결
- **(데이터 모델 관리)** AI 판단의 근거와 통제 구조 변경의 관리
- **(운영·사후관리)** 도입보다 운영에서 중요한 AI 내부통제
- **(설명가능성)** 내부통제로서의 책임성 확보

- 특히, 내부통제 체계 전환을 위해 **지주-은행사 간 역할 분리**(표준 수립·현장 집행), 금융사 내 각 부서별(1·2·3선) 역할 및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고, 제도·시스템·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음

3

은행의 AI 관련 내부통제 운영 사례

- 신한은행·카카오뱅크는 AI를 활용한 내부통제 고도화 및 AI 거버넌스 구축 등 AI 관련 내부통제 운영 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하였음
- (신한은행) AI를 활용한 내부통제 추진사업을 소개하고, 검사역의 의심거래 점검 노하우 및 판단 기준을 데이터화하여 학습한 '이상징후탐지 AI Agent' 구현 사례를 발표하였음
- (카카오뱅크) 단계별 AI 거버넌스 프로젝트('N.O 프로젝트') 추진, AI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구축 등 신뢰 가능한 AI 도입 및 운영을 위한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운영 사례를 발표하였음

4

금융회사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

- 금융감독원(은행검사1국)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('26.1.19.~1.23.) 결과 및 지배구조 개선방향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였음
- (점검결과) 「지배구조 모범관행」이 마련('23년)된 후 외관은 개선되었으나, 실제 경영진의 참호구축 등에 이용되는 등 형식적·편법적 적용 사례가 확인되었음

[지배구조 특별점검 주요내용]

- ① (사외이사 제도 및 운영)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상충 등 독립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부족, 최종 선임된 사외이사의 내부추천 편중, 親 CEO로 구성된 이사회가 CEO 경영승계절차에 참여, 수동적·형식적 이사회 운영 등 경영진 견제기능 미흡
- ② (CEO 승계절차) 現 CEO에게 승계절차를 유리하게 변경, 후보자 평가 기록 및 임추위 의사록 관리 등 미흡, 형식적 후보군 관리 및 외부 후보군에게 불리한 경쟁환경
- ③ (CEO 성과보수체계) 개별이사의 보수가 지위·역할·책임 등에 적절히 설정되는지 주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, 보수위 임원이 본인의 보수 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상충 문제,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는 합리적 보수체계 필요

- (개선방향) 금융당국은 '지배구조 선진화 TF'를 출범('26.1.16.)하여 ①이사회 권한·책임 강화, ②CEO 선임·연임 통제강화, ③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등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임

5

용도의 유용 사업자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

- 금융감독원(은행검사2국)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용 관련 최근 점검 및 제재조치 현황과 내부통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공유하였음
- 투기적 대출 관리 및 생산적 금융 전환 등을 위해 최근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용에 대한 점검 및 제재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며,
 - 특히, 개별대출의 용도의 유용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관련 내부통제 미흡사항도 점검 중에 있음을 강조하였음
- 이에,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사후점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현장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흡사례*를 전체 은행과 공유하고,
 - * 사후점검 생략, 자금 용도 부실 점검, 현장점검 미 실시 등
 - 용도의 유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 이행 및 위반 내용의 체계적 관리 등 내부통제 개선*을 당부하였음
 - * 점검 누락 등 미흡사항 및 계속거래·신규 취급 관련 내부통제 강화, 취급 영업점과 독립적인 조직을 통한 모니터링 수행 등

6

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

- 금융감독원(은행검사2국)은 최근 6개 은행에 대해 실시한 개인채무자 보호법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공유하였음
-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의 본격 시행('25.4.17.)에 앞서 내부기준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계도기간('24.10월~'25.4월) 중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자체점검을 유도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,
 - 금번 현장점검 결과, 연체관리부터 채무조정까지 쏠 과정에서 채무자 권익침해 사례*가 다수 확인되는 등 여전히 채무자 보호가 미흡함을 지적
 - * 부적정한 주택경매 신청, 추심연락횟수 제한 위반, 기한이익 상실예정 및 채권 양도 예정사실 등에 대한 대고객 통지 누락 등
- 이에, 금융감독원은 업무체계 및 시스템 미비점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,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며,
 - 아울러, 주요 5개 주제별 미흡 사례*를 전체 은행과 공유하면서 연체·취약 채무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음
 - * ① 연체관리, ② 채권추심, ③ 추심위탁, ④ 채권양도, ⑤ 채무조정

Ⅲ.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금일 워크숍은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함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으며,
 - 전문가 특강 및 은행 사례발표, 주요 내부통제 현안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통제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함
-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워크숍, 간담회 등을 통해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, 은행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